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0호 [투계 제2594호]

주체 109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음력 4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출판보도물들 격찬

비범한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지적적인 승리를 련이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출중한 정치실력과 위인적품모에 매혹된 세계인민들의 정승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마자르로동당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을 올렸다.

세계는 김정은동지의 위업을 드립없이 계승해나가는 김정은 동지를 탁월한 정치가, 꿩이신 령도로 공인하고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면서 전제 인민이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 길로 꿋이 전진하도록 이끌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의의있는 성과들이 이룩되고 인민생활은 날로 향상되고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고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강철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신다고 하면서 캅보사상인 《노코르 례메일리》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빛내이시는 김정은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인민사랑으로 일관되어 있다.

인민을 위해 바치는 령도자의 무한한 사랑에 감복한 조선인민은 그이께

명도 미해도 다 말기고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은 김정은위원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탄자니아신문 《우후루》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국제사회는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제재압박에서도 계속 솟구쳐오르는 비결을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에서 찾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무한대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오늘날 조선에서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이러한 당을 인민들이 진심으로 따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파키스탄신문 《엘렉트라 임스》는 김정은령도자이시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라고 격찬하였으며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는 김정은각하이시라고, 그이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백승만을 펼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각하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리상적인 국가령도자이라고 하면서 브라질신문 《아구아 베

레》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애민형의 정치가이신 김정은 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머니로, 스승으로 모시고있다.

로세야의 따쓰통신, 리아노보스찌통신, 인페르락스통신과 신문들인 《폼소블스까야 브라우다》, 《로세스까야 가제따》, 《레베웨 TV방송, 인터넷신문 《에지나야 코레야》, 인터넷 TV 《미르 24》, 인터넷잡지 《렘취》를 비롯한 수십개 언론들도 현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로 세인의 각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담아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첫순간부터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큰 관심을 모으신 지도자이시다. 그이의 특출한 정치실력에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조선인민이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르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세계진보적인류는 명인으로 존경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확고한 자주적신념과 담대한 결단력, 넓은 포용력과 능숙한 외교지략, 고상한 성품앞에서 누구나 마음이 끌리며 단번에 매혹

되고있다.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는 너무나 웅대한것이다.》

《인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리시며 정을 나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인민은 열렬히 신뢰하며 따르고있다.》

마자르로동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주목할만한 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중요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을 벌이고있다.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에스빠냐 마스크로체사상연구소 책임자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향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창조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특출한 령도력을 발휘하고계신다고 하면서 도이철란드 드레즈덴주체사상연구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적방향을 밝혀주고 있다.

자주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에 참가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완수해나가는 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김정은각하의 연설을 수많은 나라의 인민들은 강렬한 감동속에 받아안았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이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미치고 실행하여야 할 혁명사업으로 되고있다.

약동하는 술결로 높뛰는 사회주의조선은 주체의 조국,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날것이다.

진정한 근로인민의 세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참다운 삶을 빛내여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은 국제사회의 찬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탄자니아신문 《더 뉴 에이취》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은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이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주권기관선거를 비롯한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며 누구나 다 선거권리와 선거권을 가진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에 따라 모두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국가가 꾸려준 문화회관들과 휴양소, 전망소 등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다.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하나 꾸러도 거기에서 일할 근로자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문제, 건강문제를 먼저 관심하고 풀여주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자들에게 평등한 로동의 권리와 필요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

으며 누구나 보람찬 로동속에서 행복한 삶을 꽃피울수 있게 해주었다. 조선에서는 로동이 그대로 노대로 되고있으며 일터마다에서 근로자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 나고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선은 방방곡곡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받은 훌륭한 살림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로동자가정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다. 로동자들이 일생을 벌어도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자본주의 사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이었다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공공문화복건 및 인구조조 조선훈문기간에 받은 인상을 피력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이 국가적관심사로, 제일중대사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선군정치연구소 내발문화연구소는 조선방문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거리를 방향하는 사람들을 단 한명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나라 정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일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있다.

사람들모두가 평등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고있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다.

조선에서는 근로인민이 회담과 소절에 따라 배우며 일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로세

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계속 실시되고있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있어서 참다운 존엄을 빛내여가는 조선의 근로자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조선은 진정한 근로인민의 세상이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것은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보급을 통하여 원격교육까지 받는다니 놀라기만 하다.

이것이 바로 근로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로동자들은 착취계급의 치부의 수단,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받았지만 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이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주인의 되어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 밑에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의 국력은 날로 더욱 강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조국소식

날마다 새 모습을 드러내는 건설장

나무모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공들

국토환경보호중심 중앙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무모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있다.

양묘장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나무모재배용 경기질생산공정을 확립할 목표를 세우고 고심어린 탐구끝에 비저발효용복합균을 배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육에 필요한 영양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이곳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혼한 원료를 가지고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후민산미량광물질 복합비료를 생산함으로써 나무모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고 지력을 개선하며 나무모의 뿌리내림 능력과 불리한 환경조건에 대한 견딜성을 높여주고 있다.

양묘장에서는 선진적인 나무모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나무모의 사멸률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이고 있다.

새형의 관광용축전지차 생산

최근 평양시력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보내줄 새형의 관광용축전지차 수십대를 생산하였다.

관광용축전지차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할수 있는 전동기생산을 맡은 평양무래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짧은 기간에 새형의 전동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십종에 수백점에 달하는 부품품들과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었다.

새형의 축전지차에는 속도도와 축전지전압상대가 현

평양 종합 병원 건설장에서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질적지표가 정확히 보장된 혼합물을 팡팡 생산하고있다.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공정별에 따르는 건설기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건설자들은 작업현장에 혼합물분배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콘크리트타입속도도 부쩍 높이고있다.

대중의 경쟁열이 고조되어 공사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건설현합상무의 일군들은 필요한 자재와 설비, 부속품 등을 예견있게 보장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가슴깊이 새기고 건설공정별로 시공기준과 건설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누가 보지않던 순결한 량심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가는 이곳 건설자들이다.

평양종합병원건설지원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착공식이 진행된 지난 3월에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 등 각도에서 수많은 기공주와 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어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평안남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아낌없는 지성을 다 바치고 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을 자주 찾기고있다.

또한 조선민예련합사, 평안북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아낌없는 지성을 다 바치고 있다.

인민을 위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돌격전을 벌이고있는 건설자들의 높은 애국열의와 지원자들의 성의속에 평양종합병원은 날마다 그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케블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 -

▲ 농사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가물에 단비》, 《농사는 물농사》, 《논에는 물이 장수》라는 말도 생겨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B.C. 1세기 세나라시기에 벌써 논을 풀기 위한 보막이를 비롯한 관개시설들이 건설되었으니 A.D. 2~3세기경에는 낙동강유역과 호남벌 등 남부지역에서 논농

이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 공화국에서는 모내기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한창 곡식이 자라고

의 요구에 맞게 물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하여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

를 통해서도 볼수 있다.

▲ 공화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일대에 논밭의 생명수인 물을 더 원만히 대주기를 위하여 수년전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가 완공되었다. 그

온 나라에 흐르는 생명수

무는 7~8월에는 장마가 지는 자연기후특성으로 하여 수리화물체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여기에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큰물과 가물피해로부터 토지와 농작물을 보호하며 농작물



▲ 농사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